

“스쿨미투 연루 교사 14명 교단 떠나라”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법인에 파면·해임 등 징계 요구 2개교 38명 중 사안 경미한 14명은 경고·자제중결·보류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스쿨미투’ 사건에 연루된 2개 고교 교사 38명 가운데 14명을 파면·해임하라고 소속 사립학교법인에 요구했다.

파면·해임 대상 교사는 여자 성추행·성희롱 비위가 수사나 감사를 통해 밝혀진 광주 사립고 2개교 소속 교사들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권한을 가진 학교법인이 파면·해임을 확정하면 교단을 떠나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광주 A고교 교사 4명에 대해 감사를 거쳐 1명은 파면, 2명은 해임(이상 징계제), 나머지 1명은 감봉 처분할 것을 소속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들 교사 4명에 대해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으나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광주 B고교 교사 34명에 대해서는 이미 파면된 2명을 제외한 17명(파면 5명, 해임 6명, 징직 4명, 감봉 1명, 견책 2명)을 중·경징계 처분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뚜렷하지 않은 교사 14명에 대해서는 경고·자제중결·보류 등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징계 요구권자인 시교육청이 수사 대상자 여부 또는 수사기관의 기소·불기소 처분에 구애되지 않고 강력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시교육청 성비위 사안 처분(요구) 기준에 따르면 파면은 성추행 혐의가 기소됐거나 감사 등을 통해 성추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임은 그 외 성비위 행위자에게 내려진다. 성추행·성희롱에 이르지 않았으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언행이 있는 경우 징직 처분을 요구하는 등 성비위 경중에 따라 수위를 결정한다.

해당 학교에서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A고 3명, B고 11명 등 모두 14명이 교단을 떠나야 한다. 앞서 B고에선 이미 2명이 구속돼 파면조치 됐다.

시교육청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형벌과 징계법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징계는 학교에서 시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해야 확정된다.

다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아 교사들의 비위 사실을 확정하기 어려운데다, 기소되지 않은 교사가 징계를 받게 된 경우 소청이나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추행,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의 경중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수위) 등에 관한 규칙과 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 대상과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수 교사가 수사를 받은 학교가 더 있어 징계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사들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추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내 4대 매화’ 백양사 고불매 만개 28일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를 찾는 관광객이 우리나라 4대 매화로 꼽히는 백양사 고불매(古佛梅, 천연기념물 제486호)를 휴대전화에 담고 있다. 백양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백양사 고불매 축제’를 열고 공연·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장산국립공원백양사사무소 제공>

이틀간 전국 산불 20여건 산림청, ‘경계’ 경보 발령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지난 26~27일 이틀간 화산 등 전국에서 산불이 20건이 발생해 산림청과 각 지자체체가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28일 산림청·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30분께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일원에서 공사 중 용접 불티가 주변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났다. 다행히 불은 초기에 진압되며 임야 500㎡를 태우고 재산피해 25만원을 내는데 그쳤다.

또 같은날에만 부산시 연제구, 경기 고양시 덕산구, 경북 안동시 등 전국에서 산불 12건이 발생했다. 전날은 8건 발생했다.

지난 1월1일부터 지난 25일 기준 전국 산불 발생 현황은 267건(피해면적 79ha)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68건(34.1%) 늘어났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20건으로 33.3% 증가했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6일 오후 5시 국가산불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또 전국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만여 명이 등산로 입구와 농·산촌 산림 입접지 등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순찰·계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면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무등산동부사무소 ‘국립공원 시민대학’ 4월9일까지 접수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지역사회와 국립공원의 상생 프로그램인 ‘국립공원 시민대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시민대학’은 4월18일부터 9월5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총 10강좌로 진행된다.

강동원 전 국립공원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서는 ‘국립공원 제도와 정책’을 시작으로 ‘생물다양성과 무등산국립공원’ (강사 김영선 한국환경생태학회 교육이사), ‘내 인생을 바꾸는 여행’ (이상은 여행사진작가), 선진지 현장견학 등 실내·실외학습으로 구성된다.

화순·담양지역 거주민은 누구나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4월 9일까지 우편·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국립공원 홈페이지(mudeung.knps.or.kr)를 참고하거나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061-370-5722)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5 | 해질 18:51 | 달뜨기 02:15 | 달지기 12:24

메아리 대기
구름 많고 대기 매우 건조하겠다.

광주	구름 많음	6/18	보성	구름 많음	4/18
목포	구름 많음	6/16	순천	구름 많음	7/19
여수	구름 많음	9/17	영광	구름 많음	3/16
나주	구름 많음	2/18	진도	구름 많음	6/16
완도	구름 많음	7/18	전주	구름 많음	5/17
구례	구름 많음	5/18	군산	구름 많음	4/14
강진	구름 많음	5/19	남원	구름 많음	4/17
해남	구름 많음	3/18	혁신도	구름 많음	6/12
장성	구름 많음	2/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1.0~2.0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2.0	북동~동	0.5~1.5

◇생활지수

- 보통
- 뇌졸중
- 보통
- 감기
- 보통
-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43	08:30
여수	14:45	20:25
	10:32	03:43
	21:48	15:40

◇주간 날씨

30(토)	31(일)	4/1(월)	2(화)	3(수)	4(목)	5(금)
☁	☁	☀	☀	☀	☁	☁
7/15	3/10	2/13	3/14	3/16	4/16	7/19

중·고교생 10% 이상 수학 기초학력 미달 교육부 미달 비율 증가 판단... 초1~고1 진단 평가 도입

중·고교생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수학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정부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국어의 경우 중학생 4.4%·고등학생 3.4%, 영어는 중학생 5.3%·고등학생 6.2%가 기초학력에 못 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각 1만3000여명(전체의 3%)씩을 대상으로 표집평가한 것이다. 고교 수학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 대도시와 읍·면 단위 지역을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는 대도시가 더 높았다.

2017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고등학교 국어를 제외하고 전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했다.

2017년 평가 때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2.6%·수학 7.1%·영어 3.2%였다. 고등학생의 미달 비율은 국어 5.0%·수학 9.9%·영어 4.1%였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단해 보충하기로 했다. 법·제도 마련을 위해 ‘기초학력 보강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기존 같은 국가 차원의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교별로 진단 도구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개별 학생을 진단하고 보충학습을 제공한다. 진단 결과는 학부모에게만 제공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시범 모델을 내년 도입한다. 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영어 교육을 기초부터 지도한다. 초등 1학년 때 관행적인 받아쓰기·일기쓰기는 폐지하고 문해력 강화 및 놀이 중심 수학교육을 늘릴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 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 10% · 융자 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대표전화 1577-8963 | 전남지사 010-6838-3366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주 소 | 순천시 중양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주)성광에너지